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고 계시고, ‘인간’은 노력하고 수고하며 이루면서 살고 있다.
2. 눈을 떠야 스치는 것도 알게 된다.
3. 육신의 눈에 보여도 그것의 가치에 대해 눈을 떠야 가치를 알게 된다.
4. 그것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해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사용한다.
5. 마음의 눈을 뜬 자는 마음으로 느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천국같이 누린다.
6.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심령의 눈을 못 뜬 자는 보기는 해도 못 느끼고, 듣기는 해도 못 느낀다.
7. 사랑의 마음의 눈을 떠라.
8. 눈을 뜬 자는 못 참는다.
9. 음식도 마음의 눈을 뜬 자는 음식 맛을 알고 먹고, 마음의 눈을 못 뜬 자는 음식 맛을 모르고 먹는다.
10. 마음의 눈을 떠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된다.
11. 사랑도 마음의 눈을 못 뜬 자는 사랑하다가 말게 된다. 육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자는 소경이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자는 눈뜬 자다.

12. 마음의 눈을 뜬 자는 ‘돌’이 보물로, 황금으로, 돈으로 보이고 그 근본의 가치를 안다.

13. 마음의 눈을 못 뜨고 육의 눈만 뜨고 보는 자는 그 가치를 10분의 1정도 밖에 못 본다.

14. 성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아는 자는 마음의 눈을 뜬 자다.

15. 나사렛 예수님이 역사한다고 아는 자는 육의 눈만 뜬 자다.

16. 천국과 낙원이 똑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17. 나사렛 예수가 재림하고, 그 육이 눈에 보이게 온다고 하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18.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못 뜬 자는 두 개를 하나로 본다.

19. 악과 선이 같이 있는데, 선악을 쪼개서 보지 못하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20. 선과 악을 완전히 쪼개서 보는 자는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뜬 자다.

21. 자기중심으로 하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22. 육 휴거와 영 휴거를 쪼개서 보지 못하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23. ‘육’은 하나님과 성자가 땅에 보낸 자의 육신을 중심하여 이루는데, 성자 주님께서 땅의 사명자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땅에서 육신을 휴거시키신다. ‘육’이 시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땅에 보낸 자를 믿고, 그를 통해 성자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 ‘영’은 육의 행위를 통해 변화된다. 그러면 성자 본체의 영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변화된 영들만 하늘 공중으로 이끌어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떠서 육 휴거와 영 휴거가 무엇이 다른지 정확하게 분별하여라.

24. 영은 육같이 정확하게 형체를 가지고 ‘영체’로서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고, 육은 몸과 마음·정신·생각을 가지고 ‘육체’를 이루고 있고, 마음·정신·생각이 초자연적 현상으로 보이는 ‘혼체’를 이루어 꿈에 보이며 활동한다.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

25. 사탄과 귀신을 모르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26. 마음의 눈을 뜨고 기도하여라.

27. 마음의 눈을 뜨고 보는 자는 보니까 느낀다.

28.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뜬 자는 마치 사람이 눈을 뜨고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느낌과 깨달음이 확실하다.

29. 소경은 직접 못 보고 그저 생각으로만 느껴 본다.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못 뜬 자도 그러하다.

30. 마음의 눈을 못 뜬 자는 성자 주님과 대화를 못 한다.

31. 시대 사명자의 사명을 100% 모르는 자는 마음의 눈을 못 뜬 자다.

32. 성자 주님은 사랑체다. 고로 ‘사랑’으로만, ‘진리’로만 성자 주님과 통한다.

33. 마음의 눈을 뜬 자는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받을 사듯이, ‘사랑’으로 성자 주님과 시대 사명자를 자기 것으로 삼는다.

34. 사랑체는 사랑으로만 통한다.